

청소년의 부모통제지각과 내·외현문제의 관계 : 자존감의 매개효과

장경문*

¹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Associations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s : Self-esteem as a Mediator

Kyung-Moon Chang^{1*}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심리 및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자존감 및 내·외현문제 간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자존감이 부모통제와 이들의 내·외현문제 간을 매개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심리 및 행동통제, 자존감, 그리고 내현 및 외현문제를 측정하였다. 총 355명(남: 171명, 여:184명; 중학생: 170명, 고등학생: 18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부모심리통제는 낮을수록, 행동통제는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존감이 높고 내·외현문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내·외현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부모심리통제와 내현문제 간을 부분매개, 부모행동통제와 내현 및 외현문제 간을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문화나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바람직한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One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behavioral control and adolescents' self-esteem and their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s. The other is to examine if self-esteem mediate the effects of parental control upon adolescents' internalized /externalized problems. Total of 355 girls(52%) and boys(48%) from middle(48%) and high school(52%) were participated. Results indicated that adolescents' self-esteem, and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s were negatively related to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ositively related to parental behavioral control. It was also found that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upon adolescents' internalized problems, and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parental behavioral control on their internalized as well as externalized problems. Some implications for advisable parenting behaviors were discussed.

Keywords : Adolescent;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s; Parental Control; Self-esteem

1. 서론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최근연구들은 양육행동을 '부모 지지 (parental support)'와 '부모통제(parental control)'의 차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부모통제는 '심리적 통제 (psychological control)'와 '행동적 통제(behavioral

control)'로 구분하고 있다[1]. 심리적 통제는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의식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사고, 감정, 자기표현, 등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동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본 논문은 2014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yung-Moon Chang(Sookmyung Women's Univ.)

Tel: +82-2-710-9698 email: chang006@sm.ac.kr

Received May 26, 2015

Revised (1st June 23, 2015, 2nd June 29,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015

규칙준수 여부 등을 감독(*monitoring*)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Steinberg를 비롯한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은 적절한 부모행동통제는 청소년들이 음주, 약물사용, 자살시도 등 일탈적 문제행동, 즉 외현화 문제(*externalized problems*)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반해, 부모의 심리통제는 자녀의 정서적 고통을 높이고, 부정적 자기관(예컨대,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함으로써 불안이나 우울 등의 내현화 문제(*internalized problems*)로 연결되는 것으로 밝혀 왔다[3,4,5,6,7,8,9,10].

자존감(*self-esteem*)은 자기에 대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관련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 중 하나이다[11,12]. 자존감 발달과정에 관한 대표적 이론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에 따르면, 자존감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다양한 개인 내적, 사회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받는 반사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가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원천이라고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고한 통제, 합리적 설명과 지지,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부모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며, 과도한 벌이나 죄책감 유발, 사랑의 철회 등의 부모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을 낮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해 왔다[10, 13, 14]. 청소년의 내·외현 문제행동과 자존감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높은 자존감이 학업성취, 사회적 유능성, 좋은 인간관계,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 등 친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비행이나, 학업실패, 이른 성(性)적 접촉, 우울 등 개인의 내·외현적 문제행동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15,16,17,18].

청소년의 자존감과 내·외현행동문제의 관계와 진행 경로에 대한 Mann 등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의 불안정한, 또는 낮은 자존감은 적극적 탈출(*active escape*)이나 소극적 회피(*passive avoidance*)의 두 노선(*route*) 중 하나로 진행되며, 탈출노선은 외현문제(예: 공격행동, 폭력, 학교 중퇴, 타인의 인정 획득을 위한 위험한 행동 시도, 마약, 음주 등)와 연결되고, 회피노선은 내현문제(예: 절망, 자포자기, 우울 등)로 연결되는데 극단적인 회피는 자살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15,19,20,21].

한편, 부모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Wang 등은 부모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이나 문제행동으로 연결되기보다 청소년의 개인의 자존감을 통해서 연결된다고 주장 한다[22]. 부모의 지지(*support*)와 감독(*monitoring*)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관(즉 높은 자존감)을 갖도록 하여 우울과 같은 내현문제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데 반해, 거부(*rejection*)나 강압(*coercion*)과 같은 부모행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즉 낮은 자존감)를 하도록 하여 우울증상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23]. 실제로 몇몇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거부적 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고, 그에 따라 우울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여 부모행동과 아동의 우울 간에 자존감의 매개 가능성을 제안하였고, 부모의 수용/거부, 자율성 지지/심리적 통제, 확고한/느슨한 통제행동과 아동의 우울 간에 아동의 자기가치(*self-worth*)에 대한 지각이 부분적으로 매개작용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24, 14].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통제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부모심리통제(특히 모의 심리통제)와 자녀의 우울이나 불안 등 내현문제의 관계를 다루거나[9,25,26], 부모행동통제와 외현문제의 관계를 다루는 등,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 연구에서 부모(심리 및 행동)통제와 내·외현문제의 연관성을 함께 다루고 있는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6,27,28,29]. 또한, 부모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이나 내·외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나[9,25,26] 청소년 개인의 자존감이 내현 또는 외현문제와 연관된다는 연구들[22, 23]은 꽤 있어왔지만 한 연구에서 부모심리 및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내현 및 외현문제 간에 자존감이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모두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모의 심리 및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자존감 및 내·외현문제 간에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 본 후, 청소년 개인의 자존감이 부모심리 및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내현 및 외현문제 간에 어떤 매개작용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서울과 인천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2곳으로부

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 2, 3학년 학생들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총 40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77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지 22부를 제외하고 총 35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남학생이 171명(48%), 여학생은 184명(52%)이었으며, 중학생이 170명(47.9%), 고등학생이 185명(52.1%)이었다. 응답자의 92%(326명)는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한 부모 가족의 경우는 20명(5.6%)정도였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심리통제

Shek(2006)이 개발한 중국 아버지 심리적 통제 척도(The Chinese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cale: CppCS)와 중국 어머니 심리적 통제 척도(The Chinese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cale: CMpC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30].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5가지 심리적 통제(즉, 개인적 감정이나 경험의 불인정, 언어적 표현의 강요, 인신공격, 애정철회, 지나친 단속 등)에 대해 각 2문항씩,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두 척도는 실제로 똑같은 문항이지만, 부와 모 각각에 대해 따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Shek이 보고한 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89$ 와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계산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91$ 과 $.88$ 로 이와 비슷하였다. 부 심리통제 점수와 모 심리통제 점수를 합하여 부모심리통제 점수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2.2.2 부모행동통제

본인의 행동을 부모가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녀의 입장에서 보고하는 총 5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우리 아빠/엄마는 방과 후에 내가 어디에 가고, 뭘 하는지 대체로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아빠/엄마는 내가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아빠/엄마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대체로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아빠/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는지 대체로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밤에 친구랑 외출을 한다면, 우리 아빠/엄마는 내가 어디에 가는지 잘 아신다.” 등이다. 부와 모에 대해 따로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Likert식 4점 척도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행동통제가 높

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문항들은 Stattin & Kerr(2000)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행동(monitoring)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이다[31]. 이들의 연구에서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측정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부와 모를 따로 계산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77$ 과 $.84$ 였다. 부 행동통제 점수와 모 행동통제 점수를 합하여 부모행동통제 점수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2.2.3 자존감

김문주(1988)가 번안한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심리척도 핸드북 I, PP. 177). 총 11 문항이었고, Likert식 6점 척도였다. 번안자가 보고한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 문항 내적 합치도는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계산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2$ 정도였다[32,33,34].

2.2.4 내현문제와 외현문제

내현문제는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자기보고(the Child Behavior Checklist-Youth Self-Report(Achenbach와 Edelbrock, 1981)의 문항들 중 내적, 심리적 문제를 재는 문항들인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는 불행하고, 슬프고, 우울하다” 등 3문항을 사용하였다[35].

외현문제의 측정은 “나는 음주, 흡연, 또는 약물(질병 치료 목적 제외)을 사용한다”, “나는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을 한다”, “나는 남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다”, “나는 가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 등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앞 3문항은 Barber 등 (1994)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외현문제 측정에 쓰였던 문항들을 본 연구자가 번역한 것이며[6], “나는 가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본 연구에서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Likert식 6점 척도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문제나 외현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내현 및 외현문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84$ 와 $.74$ 였다.

2.3 분석방법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와 상관분석(Pearson's 'r'), Baron과 Kenny (1986)의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

과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집단과 성별 및 학교급별로 계산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전체집단의 평균을 보면, 각 척도의 가능한 점수범위에 비추어 볼 때(Table 1참조), 청소년의 부모심리 및 행동통제지각이나 내현문제는 대체로 높지 않으며, 자존감과 외현문제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평균을 보면, 부모심리통제와 내현문제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고, 외현문제는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p < .01$). 부모행동통제에 대한 지각이나 자존감은 성별 및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 부모(심리 및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자존감 및 내·외현문제 간의 상관분석

부모심리통제와 청소년의 자존감 및 내·외현문제 간에는 부적 상관이 유의하여(자존감: $r = -.3$, 내현: $r = -.33$, 외현: $r = -.42$, $p < .001$) 부모심리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

의 자존감은 낮고, 내·외현문제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행동통제와 청소년의 자존감 및 내·외현문제 간에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여(자존감: $r = .28$, 내현: $r = .19$, 외현: $r = .15$, $p < .001$) 부모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존감은 높고, 내·외현문제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관계수의 크기로 보면, 청소년의 자존감 및 내·외현문제는 부모행동통제보다는 심리통제와 높은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의 자존감과 내·외현문제 간에도 정적 상관이 유의하여 자존감이 높을수록 내·외현문제가 모두 많았으며, 자존감은 외현보다는($r = .23$) 내현문제와 더 높은 상관이 있었다($r = .59$).

3.3 부모(심리 및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내·외현 문제 간, 자존감의 매개효과

부모심리통제와 청소년의 내현 및 외현문제 간에 자존감이 매개작용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1단계분석에서 부모심리통제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5$, $p < .001$), 2단계분석에서는 부모심리통제가 내현문제($\beta = -.33$, $p < .001$)나 외현문제($\beta = -.42$, $p < .001$)를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분석에서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내현 및 외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2단계보다 3단계

Table 1.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e variables

Variable	Possible Score on Scale	Total (n=355) M(SD)	Gender			School Level		
			Boys (n=171) M(SD)	Girls (n=184) M(SD)	t	Middle (n=170) M(SD)	High (n=185) M(SD)	t
Psy. Control	20 ~ 80	40.55(11.33)	42.67(11.18)	38.59(11.14)	3.50**	42.29(11.70)	38.96(10.76)	2.79**
Beh. Control	10 ~ 40	26.97(5.65)	26.57(5.38)	27.34(5.87)	-1.28	26.66(6.04)	27.25(5.26)	-.99
Self-esteem	6 ~ 66	40.95(8.82)	40.51(9.08)	41.36(8.58)	-.91	41.44(9.12)	40.51(8.54)	1.00
Inter. Problems	3 ~ 18	11.73(4.00)	12.22(4.03)	11.28(3.92)	2.24*	12.48(4.00)	11.04(3.87)	3.44**
Exter. Problems	4 ~ 24	21.00(3.58)	20.33(4.05)	21.63(2.95)	-3.47**	20.33(4.29)	21.62(2.63)	-3.44**

** $P < .01$, * $P < .05$

Table 2.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control, self-esteem, and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s

	1	2	3	4
1.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2. Parental Behavioral Control	-.20***	-		
3. Self-esteem	-.35***	.28***	-	
4. Internalized Problems	-.33***	.19***	.59***	-
5. Externalized Problems	-.42***	.15**	.23***	.26***

** $P < .01$, *** $P < .001$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s

Step	Predictor	D. V.	β	t	R ²	F	Condition	Sobel's Z
1	Parental Psy. Con.	Self-esteem	-.35	-7.00***	.12	49.00***	satisfied	
2	Parental Psy. Con.	Internalized Pro.	-.33	-6.51***	.11	42.39***	satisfied	
3	Parental Psy. Con.	Internalized Pro.	-.14	-3.08**	.36	98.86***	satisfied	-6.04 ***
	Self-esteem		.54	11.78***			(partial mediation)	
1	Parental Psy. Con.	Self-esteem	-.35	-7.00***	.12	49.00***	satisfied	
2	Parental Psy. Con.	Externalized Pro.	-.42	-8.70***	.17	75.77***	satisfied	
3	Parental Psy. Con.	Externalized Pro.	-.39	-7.57***	.18	39.65***	unsatisfied	-1.92
	Self-esteem		.09	1.76				
1	Parental Beh. Con.	Self-esteem	.28	5.55***	.08	30.85***	satisfied	
2	Parental Beh. Con.	Internalized Pro.	.19	3.61***	.04	13.05***	satisfied	
3	Parental Beh. Con.	Internalized Pro.	.03	.55	.34	91.88***	satisfied	5.09***
	Self-esteem		.58	12.83***			(complete mediation)	
1	Parental Beh. Con.	Self-esteem	.28	5.55***	.08	30.85***	satisfied	
2	Parental Beh. Con.	Externalized Pro.	.15	2.84**	.02	8.07**	satisfied	
3	Parental Beh. Con.	Externalized Pro.	.09	1.72	.05	11.05***	satisfied	3.48***
	Self-esteem		.20	3.71***			(complete mediation)	

** P<.01, *** P<.001

에서 줄어들었지만(내현: $\beta=-.33 \rightarrow \beta=-.14$; 외현: $\beta=-.42 \rightarrow \beta=-.39$), 자존감이 내현문제에 미치는 영향($\beta=.54, p<.001$)과는 달리, 자존감이 외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beta=.09, p>.05$)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자존감은 부모심리통제와 청소년의 내현문제 간에는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작용을 하지만, 부모심리통제와 외현문제 간에는 유의한 매개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내현 및 외현문제 간에 자존감이 매개작용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1단계분석에서 부모행동통제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8, p<.001$), 2단계에서는 부모행동통제가 내현문제($\beta=.19, p<.001$)나 외현문제($\beta=.15, p<.01$)를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단계분석에서는 부모행동통제가 내현 및 외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긴 했으나(내현: $\beta=.19 \rightarrow \beta=.03$; 외현: $\beta=.15 \rightarrow \beta=.09$)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내현: $\beta=.03, p>.05$; 외현: $\beta=.09, p>.05$). 부모행동통제가 청소년의 내·외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모행동통제가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에 따라 내·외현문제가 많아지는 간접적 영향이 유의하다는 것으로, ‘완전매개

(complete mediation)'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심리통제는 높을수록, 행동통제는 낮을수록 청소년의 내·외현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심리통제가 자녀의 우울이나 불안 등 내현문제를 높이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비행 등 외현문제를 낮춘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상반되는 것이다[2,3,37,38].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 및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나라에 따라 다르며 문화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Wang과 동료들은 부모심리통제의 부정적 영향이 평균 12세경에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중, 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영신은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과 심리적 증상과

의 관련성이 중학생에게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고등학생에서만 나타났고 하였다[39,7].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모통제행동에 대한 지각이나 이해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른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 문화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들어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과도한 간섭이라기보다는 당연한 부모의 관심 또는 애정으로 지각하는 반면, 일상적 활동이나 규칙준수 등을 지시, 감독하는 부모의 행동을 오히려 속박이나 간섭으로 인지하여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실증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28].

둘째, 부모심리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외현문제는 적어지지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반면, 부모행동통제는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외현문제는 많아지지만,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존감은 낮추지만 내·외현문제를 줄이는 것(즉 심리통제)이 바람직한 양육행동인지, 아니면 내·외현문제가 약간 높아지더라도 자존감을 높이는 것(즉 행동통제)이 바람직한 양육행동인지에 대한 논쟁을 야기한다.

본 연구자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내·외현문제가 약간 높아지더라도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행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기는 부모와 분리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통제력을 확립하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정체감을 형성하는 발달적 과업을 이루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혼란과 이탈적 행동은 충분히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내현 및 외현문제 측정에 사용된 문항내용이 심각한 범죄수준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부모심리통제와 청소년의 내현문제 간, 부모행동통제와 내현 및 외현문제 간을 자존감이 각각 부분 또는 완전매개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이나 문제행동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통해서 연결된다고 한 Wang 등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22]. 그러나 이러한 연결과정에서 높은 자존감이 오히려 내·외현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내·외현문제행동의 관

련성을 다루고 있는 다른 연구들과 상반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17,18,19].

Kernis에 따르면, 자존감이 심리적 기능에 작용할 때는 자존감의 수준(level) 차원 뿐 아니라 안정성(stability) 차원이 함께 작용하며, 높지만 불안정한 자존감은 낮은 자존감만큼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40,41].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에 발달 상 나타나는 높지만(high) 불안정한(unstable) 자존감이 반영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가 추측된다.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개인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 간다.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혼란은 일시적으로 자기-확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또는 불안정한 자존감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불안정한 자존감상태에서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불신하거나,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부적절한 공격반응을 보이는 등 문제행동에 연루될 수 있다[15,23]. 이에 대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과 인천지역에서만 표집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성이 있고, 변인측정을 청소년 자신의 지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반응에 개인의 주관성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된 자료가 횡단적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K. M. Chang, "The influence of children's perceived paternal/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ra-extraversion characteristics on their self-determination and School achieve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 No. 1, pp. 165-179, 2007.
- [2] B. K. Barb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 67, No. 6, pp. 3296-3319, 1996.
DOI: <http://dx.doi.org/10.2307/1131780>
- [3] L. Steinberg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Feldman, S. S., Elliott, G. R.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90.
- [4] R. A. Bean, B. K. Barber., D. R. Crane,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7, No. 10, pp. 1335-1355, 2006. DOI: <http://dx.doi.org/10.1177/0192513X06289649>
- [5] B. K. Barber,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2002.
- [6] B. K. Barber, J. A. Olsen, S. C. Shagle,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Vol. 65, No. 4, pp. 1120-1136, 1994. DOI: <http://dx.doi.org/10.2307/1131309>
- [7] Y. S. Park, "Parental control of adolescents' personal domain and psychological sympto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3, No. 1, pp. 51-65, 2010.
- [8] D. T. Shek, "Perceived parental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34, No. 2, pp. 163-176, 2006. DOI: <http://dx.doi.org/10.1080/01926180500357891>
- [9] Y. J. Chyung (2004).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oderator effects of children's sex and peer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5, No. 6, pp. 205-223, 2004.
- [10] K. R. Bush, G. W. Peterson, J. A. Cobas, A. J. Supple,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self-esteem in mainland China," *Sociological Inquiry*, Vol. 72, No. 4, pp. 503-526, 2002. DOI: <http://dx.doi.org/10.1111/1475-682X.00031>
- [11] M. Rosenberg,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Rosenberg, M. & Turner, 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1981.
- [12]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Reeman and Company, San Francisco, 1967.
- [13] P. R. Amato, F. Fowler,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4, No. 3, pp.703-716, 2002.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02.00703.x>
- [14] J. Garber, N. S. Robinson, D. Valentiner,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2, No. 1, pp. 12-33, 1997. DOI: <http://dx.doi.org/10.1177/0743554897121003>
- [15] M. Mann, C. M. Hosman, H. P., Schaalma, N. K. de Vries, "Self-esteem in a broad -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4, pp.357-372, 2004. DOI: <http://dx.doi.org/10.1093/her/cyg041>
- [16] V. Gecas, J. Peter, Burke, "Self and identity," I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Cook, K. S. Fine, G. A. House, J. S. (Eds.), Allyn and Bacon, Boston, MA. 1994.
- [17] T. J. Owens,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No. 3, pp. 391-407, 1994. DOI: <http://dx.doi.org/10.2307/2095940>
- [18] M. Rosenberg, M. C. Schooler, C. Schoenback,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No. 5, pp. 1004-1018, 1989.
- [19]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New York, 1965.
- [20] E. H. Erikson, *Youth, Identity and Crisis*. Norton, New York, 1968.
- [21] M. Herbert, *Living with Teenagers*. Basil Blackwell, Oxford, 1987.
- [22] C. Wang, Y. Xia, W. Li, S. M. Wison, K. Bush, G. Peterson, "Parenting behaviors,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the role of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difficulties among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3, pp. 1-23, 2014.
- [23] S. H. Goodman, "Depressive symptoms and early adverse experiences". In *Handbook of depressive symptoms*. Gotlib, I. H., Hammen, C. L. (Eds.), NY: Guilford Press, New York, 2002.
- [24] G. R. Patterson, D. M. Capaldi, "Mediational model for boys depressed mood". In Rolf, J., Masten, A. S., Cicchetti, D., Nuechterlein, K. H., Weintraub, S.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92.
- [25] S. Y. Jeon, "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mediational effects of emotional autonomy,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5, No. 6, pp. 101-111, 2007.
- [26] E. K. Lee, S. Y. Park, "The effect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ve dispositions and

- depression on the self esteem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1, No. 6, pp. 87-106, 2010.
- [27] K. M. Chang, "Associations between youth self-differentiation,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psychological/behavioral problems -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2, pp. 845-85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2.845>
- [28] R. A. Bean, K. R. Bush, P. C. McKenry, S. M. Wilson,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8, No. 5, pp. 523-541, 2003.
- [29] Yalçın Özdemir, "Parental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trol relationships to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Sciences [Online] , Vol. 9, No. 2, pp. 1581-1590, 2012.
- [30] D. T. Shek, "Assessment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kong,"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 16, No. 4, pp. 382-391, 2006.
DOI: <http://dx.doi.org/10.1177/1049731506286231>
- [31] H. Stattin, M. Kerr,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Vol. 71, No. 4, pp. 1072-1085, 2002.
- [32] M. J. Kim, Pruefuengsanst und andere Psychosozialer merkmale, Duesseldorf, 1988.
- [33]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J., 1965.
- [34] Research center of behavior science attached Korea University, " Handbook of psychology scales I", Hacjisa, Seoul, Korea, 1998.
- [35] T. M. Achenbach,, C. S. Edelbrock, "Behaviour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188, Vol. 46, No. 1, pp. 1-82, 1981.
- [36] R. M. Baron, D. A. Kenney,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37] G. S. Pettit, R. DLaird, K. A. Dodge, J. E. Bates, M. M. Criss, "Antecedents and behavior -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 72, No. 2 pp. 583-598, 2001.
DOI: <http://dx.doi.org/10.1111/1467-8624.00298>
- [38] E. Reitz, M. Dekovc, A. M. Meijer,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in early adolescent: Child behavior as moderator and predictor," Journal of Adolescence, Vol. 29, No. 3, pp. 419-436, 2006.
DOI: <http://dx.doi.org/10.1016/j.adolescence.2005.08.003>
- [39] Q. Wang, E. M. Pomerantz, H. Chen,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Vol. 78, No. 5, pp. 1592-1610, 2007.
DOI: <http://dx.doi.org/10.1111/j.1467-8624.2007.01085.x>
- [40] M. H. Kernis,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Vol. 14, No. 1, pp. 1 - 26, 2003.
DOI: http://dx.doi.org/10.1207/S15327965PL1401_01
- [41] M. H. Kernis,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Baumeister, R. F.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lenum Press. New York, 1993.
DOI: <http://dx.doi.org/10.1007/978-1-4684-8956-9>

장 경 문(Kyung-Moon Chang)

[정회원]



- 2000년 1월 :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박사(Ph.D) 교육심리전공
- 2001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교육심리